

블룸 에너지 (BE.US)

노이즈를 압도한 실적의 실체, 어닝 리비전은 여전히 진행형

- 2Q26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입증된 강력한 외형 성장 및 영업 레버리지
- Time-to-Power 경쟁우위와 \$25B 금융 셀프 기반의 안정적 수주 전환
- 공매도 노이즈 완화 및 밸류에이션 부담 축소 속 어닝 리비전 지속

FY26Q2 실적: 매출 성장세를 앞지른 수주잔고

블룸 에너지(BE)의 2Q26 실적은 매출액 \$1.07B(+165.5% YoY, 컨센서스 대비 +28.7%), Non-GAAP 회석 EPS \$0.78(+680.0% YoY, 컨센서스 대비 +92.2%)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했다. Non-GAAP 매출총이익률은 34.3%(+6.0%p YoY, +2.8%p QoQ)로 규모의 경제 및 제조 효율화 효과를 입증했으며, 판관비 및 운영비용(OpEx) 비율이 사상 최저치인 11.8%까지 하락하며 영업이익률은 22.5%(+15.4%p YoY)로 가파르게 확대되었다.

이번 분기 구체적인 수주잔고는 미공개되었으나, FY25 기말 수치(\$6.0B)와 "백로그 증가율이 2Q 제품 매출 성장률(+215% YoY)을 상회한다"는 경영진 발언을 감안하면 현재 제품 백로그는 최소 \$8.0B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수적으로 신규 수주가 매출을 웃도는 수준(Book-to-bill > 1)만 가정해도 \$6.0B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수년간의 매출 가시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가 흐름 및 시장 반응: 공매도 의혹보다 강했던 실적

연중 견조한 우상향세를 이어가던 BE의 주가는 6/25 장중 \$351.28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6/26 러셀 지수 리밸런싱(Russell 2000→1000 승격) 발효일에 스몰캡 인덱스 펀드의 기계적 출회 물량이 집중되며 18.5% 급락했다. 다만 직후 이틀 만에 약 20% 반등하며 이는 일시적인 수급 이벤트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6월 초 와이오밍 'Project Jade' 개발사 Crusoe의 공사 중단 및 철수, 7월 Hunterbrook의 공매도 리포트 발간(7/8·24·30), Project Jupiter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주정부 2차 승인 거부(7/16) 등 이슈가 잇따르며 7/29 주가는 \$163.75까지 밀려났다(고점 대비 -53.4%).

분위기 반전은 실적 발표(7/28 장 마감 후) 직후인 7/30에 나타났다. AEP의 와이오밍 프로젝트 가동 목표 시점 조기화(2030년→2028년), 브룩필드(Brookfield)의 Equity \$100M 실집행 확인 등이 맞물리며 주가는 당일 26.5% 급등했다. 특히 같은 날 Hunterbrook의 3차 공매도 리포트가 추가 발간되었음에도 주가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노이즈보다 실적과 수주라는 펀더멘털 실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8.17): \$232.16

목표주가 컨센서스: \$278.50

▶ 투자 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매도
61%	36%	3%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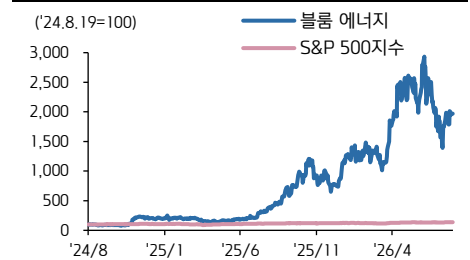
산업분류	전기 장비
S&P 500 (08/17)	7,745.06
현재주가/목표주가	232.16 / 278.50
52주 최고/최저 (\$)	351.28 / 40.56
시가총액 (백만\$)	68,377
유통주식 수 (백만)	295
일평균거래량 (3M)	14,283,296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1,474	2,024	4,061	6,705
영업이익	108	221	823	1,631
OPM(%)	7.3	10.9	20.3	24.3
순이익	65	198	783	1,478
EPS	0.28	0.76	2.55	4.71
증가율(%)	-380.0	171.4	235.7	84.8
PER(배)	-	-	91.0	49.3
PBR(배)	9.0	31.7	35.7	20.7
ROE(%)	-5.5	-13.3	44.8	46.0
배당수익률(%)	-	-	-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167.2	8.0	59.8	412.7
S&P Index	13.1	3.9	13.2	2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FY26 가이드스: 2개 분기 연속 상향 조정

BE 는 1Q26 에 이어 FY26 연간 가이드스를 재차 대폭 상향했다. 매출액은 \$3.9B~\$4.2B(중간값 기준 직전 대비 +12.5%, YoY +100%), Non-GAAP 영업이익은 \$800M~\$900M(+25.9%), Non-GAAP 희석 EPS 는 \$2.55~\$2.85 (+31.7%)로 상향 조정한 반면, Non-GAAP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스는 ~34%로 유지했다. 외형 전망치를 크게 높이면서도 마진 가이드스를 방어했다는 점은, 하반기 대규모 증산 국면에서도 제품 믹스 악화나 단가 인하 압력 없이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향 배경으로는 미국의 모든 메이저 하이퍼스케일러 및 10 여 개 이상의 네오클라우드·AI Lab·코로케이션 사업자의 기술 검증(Validation) 완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확정 수주(Committed orders)에 맞춘 'Copy-exact' 방식의 선제적 증설을 통해 공급 병목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스가 특정 단일 프로젝트에 종속되지 않으며, 현장별 공기 지연 리스크까지 사전에 감안해 보수적으로 모델링된 수치임을 분명히 했다.

브룩필드(Brookfield) 파트너십: 자금조달 병목의 해소

이번 분기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6/30 발표된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와의 AI 인프라 파트너십 확대다. 지난해 10 월 \$5.0B 규모로 출발했던 양사의 협력은 불과 8 개월 만에 \$25.0B 로 5 배 확대되었으며, 이는 단일 하드웨어 벤더에 대한 인프라 투자 약정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다.

CEO K.R. 스리다르는 이를 일종의 '파이낸싱 셸프(Financial shelf, 사전 확보된 금융 한도)'로 규정하며, "자금 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소진 속도는 해당 펀드의 전력 수요 집행에 달려 있다(This shelf is now available. The pace at which it will get used up is going to depend on the uptake of those funds)"고 밝혔다. 특히 브룩필드가 초기 \$5.0B 집행 과정에서 시스템 성능, 가동률, 장기 고객 만족도(15 년 이상 장기 고객 대상 실사 포함)를 직접 검증한 후 5 배 증액을 단행했다는 점은 글로벌 최상위 인프라 투자자에 의해 사업 모델의 신뢰성이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브룩필드는 7/31 자체 실적 발표를 통해 연초 이후 BE 연료전지 시스템에 이미 Equity \$100M 을 투입했으며 연간 \$500M 수준의 투자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해당 약정이 단순 선언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자본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금융 구조가 결정적인 이유는 BE 의 독특한 판매 모델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BE 의 계약 구조상 하이퍼스케일러 등 최종 고객이 전력(PPA) 또는 용량 계약을 체결하면, 브룩필드나 IDF 같은 금융 파트너사가 장비를 매입·소유하고 BE 는 금융사에 전액 현금 조건으로 장비를 납품한다. Simon Edwards CFO 는 "현장 여건으로 프로젝트가 일부 지연되더라도 최종 고객은 해당 장비를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사가 BE 로부터 장비를 인도받을 확정적 의무(The financier is on the hook to take delivery)를 진다"고 설명했다.

즉, 파이낸싱 셀프의 구축은 ① 고객의 초기 CapEx 부담을 제거해 즉각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② 전방 프로젝트의 단기 지연 리스크로부터 BE 의 매출 인식을 사실상 절연(완충)시키며, ③ 수주잔고의 현금화 가시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구조적 안전판으로 기능한다. 6~7 월 주가 조정을 야기했던 주요 프로젝트 지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연간 가이드언스를 대폭 상향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다만 이러한 절연 효과는 단기 인도 물량에 대한 완충 장치일 뿐 수요 자체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인허가 지연이나 개발사 이탈이 장기화되어 장비 인도가 누적 지연될 경우, 금융 파트너의 차기 트랜치 집행 속도(Drawdown pace) 둔화를 통해 중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차 전이 경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작동함을 입증한 대표적 완결 사례가 네비우스(NBIS) 프로젝트다. 5/21 328MW(최대 \$2.6B 규모) 파트너십 체결 → 7/16 IDF 주도 하 Oaktree 지분 참여, Morgan Stanley 의 Tax Equity, MUFG 선순위 대출로 구성된 \$1.7B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성 → 2Q26 실적 내 일부 매출 인식 → 8/12 뉴저지 Vineland 300MW AI 데이터센터 공급 확정까지, '수주-파이낸싱-매출 인식-실제 배포'의 전 사이클이 불과 한 분기 만에 완결되었다. 특히 네비우스가 가스터빈 대비 빠른 대기 인허가 및 지역사회 수용성을 BE 채택의 핵심 사유로 언급한 점, 그리고 IDF 컨소시엄의 누적 투자 약정이 \$2.6B 를 상회하며 참여 금융기관의 저변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유사 대형 딜의 지속적인 복제(Replication)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브룩필드의 \$25.0B 및 IDF 컨소시엄으로 구체화된 파이낸싱 셀프는 당사가 추정하는 \$8.0B 이상의 제품 백로그가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자본 병목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가이드언스 상향의 가장 강력한 실체적 담보라 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이 거대한 금융 셀프의 소진 속도, 즉 하반기 신규 대형 AI 데이터센터 수주의 추가 가시화 여부이며, 이는 주가의 핵심 재평가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쟁우위의 재정의: Time-to-Power 와 토큰 이코노믹스

경영진이 이번 콜에서 제시한 핵심 프레임은 단순 발전 단가(LCOE) 경쟁이 아닌 '시간 가치(Time-to-Power)'와 '총 토큰 수익성' 중심의 경쟁이다. K.R. 스리다르 CEO 에 따르면 1GW 급 AI 데이터센터는 연간 \$12B~\$24B 의 매출(매출총이익률 40~50%, 순이익률 20~25%)을 창출한다. 따라서 전력 병목을 해결해 가동 시점을 단 한 달만 앞당겨도 고객에게는 \$1B~\$2B 의 추가 매출 가치가 발생한다.

2027 년에만 35~40GW 의 신규 데이터센터 용량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다수 프로젝트의 본질적 병목은 전력 공급이므로, BE 시스템은 단순 LCOE 기준으로는 프리미엄일지라도 고객의 전사 손익 관점에서는 기회비용을 압도하는 경제적 선택지가 된다.

이에 따라 사측은 온사이트 발전에서 LCOE 를 "부조리한 척도(Absurd construct)"로 일축하고, 평가 기준을 '토큰 매출 대비 총 전력비용(Total cost of power to token revenue)'으로 재정의했다. 이 프레임 하에서 BE 가 확보한 3 대 차별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800V DC 직류 전력 직접 공급:** 전력 변환 손실을 최소화해 GPU 클러스터 효율 극대화
- **과잉 설비(Overbuild) 없는 고신뢰성:** 여유 전력 설비의 중복 투자 없이 안정적인 전력 가동을 확보
- **무연소·무수(無水) 친환경성:** 질소/황산화물 배출 및 냉각수 소비가 없어 도심 인근 입지와 신속한 대기 인허가 획득 가능

사측은 이러한 통합 가치(Total value proposition)를 제공할 수 있는 상용 벤더는 BE 가 유일하다고 강조하며,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시장 내 자사 점유율을 "90%대 극후반(Very high-90s)"으로 제시했다. 용융탄산염(MCFC) 등 후발 기술의 추격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 격차에 기반한 자신감을 피력했으며, 중국발 저가 AI 모델 확산에 대해서도 토큰 단가 하락이 사용량 폭증으로 이어져 전력 수요를 오히려 가속화한다는 '제본스의 역설(Jevons paradox)' 논리로 반박했다.

이러한 독점적 입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BE 특유의 '반도체식 경량 제조 모델'이다. 전통 중공업 설비 제조사들이 수년 단위의 증설 리드타임과 CapEx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것과 달리, BE 는 'Copy-exact(정밀 복제)' 모듈형 방식을 채택해 증설 투자회수(ROI)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다. 확정 수주에 연동해 즉각적인 증설이 가능하므로 수요 급증이 공급 병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아가 경영진은 중기(3~4 년) 로드맵으로 데이터센터·전기차 충전·주거용 마이크로그리드 등 전 산업의 DC 전환을 겨냥한 비전을 제시했다. 현장 직류 발전에 폐열 냉난방 및 탄소 포집을 결합해 종합 에너지 효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가전제품형 전원 솔루션'의 구축이다.

대형 데이터센터부터 도심 내 추론(Inference) 데이터센터까지 동일 플랫폼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며, 이는 송전망(고속도로)보다 도심 배전망(일반 도로) 증설이 훨씬 까다로운 미국 전력 인프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심 분산형 전력 수요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판단한다.

리스크 점검: 스칸듐, 숏 리포트, 프로젝트 지연 — 3대 의혹 평가

7 월 주가 조정을 촉발한 Hunterbrook 의 숏 리포트 3 부작(7/8·24·30)은 세 가지 핵심 의혹을 제기했다.

- ① **스칸듐 우회 조달 의혹**: "중국 비의존" 발언과 달리 아시아 자회사를 통해 중국산 스칸듐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는 점,
- ② **증산 한계**: 5GW 생산 시 연간 ~220 톤의 산화스칸듐이 필요한 반면 글로벌 고순도 공급능력은 ~240 톤에 불과해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 ③ **성능 및 스택 수명 미달**: 공공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출력과 스택 수명이 보증 기준(5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측은 Form 8-K 를 통해 해당 주장을 "허위·오도"로 일축하며 25GW 를 뒷받침할 비중국 공급망 가시성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으나, 세부 계약처가 비공개인 탓에 제 3 자 검증에 한계가 존재하며 현재 증권 집단소송(대표 원고 신청 기한 9/28)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공개된 실적 데이터는 제기된 의혹을 실증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스칸듐 가격 급등의 원가 영향: 중국의 수출허가제(2025.4 시행) 여파로 현물가가 kg당 \$640에서 \$3,300 수준까지 급등했음에도 2Q26 제품 매출총이익률은 37.2%(YoY +2.9%p)로 오히려 개선되었다. 셀당 극미량이 투입되는 소재 특성상 원자재 가격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임이 입증되었다.

수주잔고 vs RPO 논쟁: 감사보고서상 잔여이행의무(RPO, \$492M)는 취소 불능 확정 계약만 반영하는 반면, 회사의 백로그(FY25 말 기준 제품 ~\$6.0B, 서비스 포함 ~\$20.0B)는 금융 파트너의 매입 약정을 포괄한다. 장비 인도 시점에 확정 의무로 전환되는 비즈니스 모델 구조상 양자 간의 괴리는 회계 정의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스택 수명 및 가동 성능: 실질적인 스택 조기 열화가 존재한다면 보증 총당금 및 교체 비용 급증으로 서비스 마진이 훼손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매출총이익률은 2Q26 22.0%(YoY +9.8%p)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흑자를 기록했다. 상장 당시(-21%) 대비 +43%p 반등한 수치는 설치 자산 전반의 가동 성능이 계약 보증 수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 역시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와이오밍 'Project Jade'는 6월 개발사 Crusoe의 철수로 우려를 샀으나, 7/30 AEP가 가동 목표를 2028년(기존 시사 2030년)으로 조기화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뉴멕시코 'Project Jupiter'(오라클 향)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주정부 승인이 지연 중이나, 오라클이 7/28 주 경제효과(\$4.7B+) 발표와 함께 개발 지속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금융 파트너의 확정적 인수 의무와 모듈형 설계에 기반한 사이트 재배치 유연성 덕분에 전방 사이트 지연이 BE의 매출 훼손으로 전이되는 경로는 차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의혹 중 '스칸듐 공급망의 장기 안정성'이 BE의 최대 중기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된다. 성능이나 백로그 논란과 달리 스칸듐은 전용 광산 없이 부산물로만 회수되어 글로벌 회수 설비 투자에 종속되며, 공개 데이터만으로 투명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평시에는 선제적 재고와 다변화된 공급처로 관리되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시 비선형적 충격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 반대로 비중국 장기 공급계약 체결, 제련 설비 지분 투자, 스택 리사이클링 등 조달 실체를 입증하는 이벤트가 구체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단순히 해소하는 강력한 주가 촉매가 될 것이다.

단기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는 ① 증권 집단소송 대표 원고 지정(9/28), ② Jupiter 파이프라인 연방 심사 결과, ③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허가제 운영 강도다.

결론: 방향성은 이익 추정치가 증명한다

현 주가는 지난 6월 고점 대비 약 33% 조정받은 반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 가이드نس 중간값은 연초 대비 +89% 상향되었으며 시장 컨센서스 역시 이를 가파르게 추종하고 있다. 주가 조정과 이익 추정치 상향이 맞물리며 12개월 선행 PER은 6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압축된 상태로, 6월 당시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현저히 낮아진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초고성장 국면에 진입한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동력은 정적인 목표 멀티플보다 '실적 추정치 상향(Earnings Revision)의 지속성'이다. ① 매출 성장세를 앞지르는 수주잔고 유입, ② 2개 분기 연속 연간 가이드نس 대폭 상향, ③ \$25.0B 규모 브룩필드 파이낸싱 셀프의 미소진 여력을 감안할 때, 동사의 이익 상향 사이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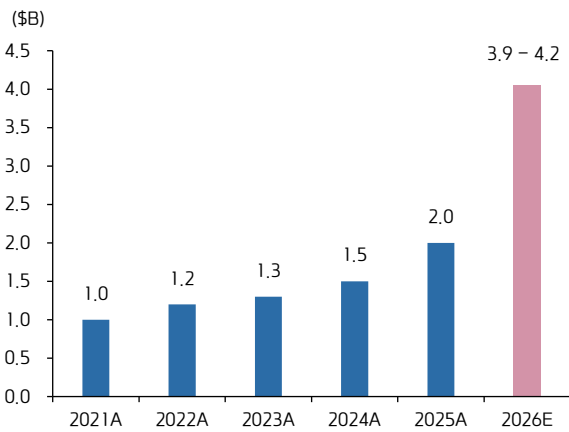
향후 주가의 핵심 상방 촉매는 신규 대형 수주 공표, 5GW 초과 증설 발표, 비중국 스칸듐 공급망 실체 입증 이벤트이며, 하방 변동성 요인은 증권 집단소송 전개 및 Project Jupiter 파이프라인 연방 인허가 결과다. 다만 연환산 100%를 웃도는 높은 주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확신과 별개로 분할 매수를 통한 진입 시점 분산 전략을 권고한다.

블룸 에너지 FY26 실적 가이드스

구분	FY25A	FY26 Guidance					
		25Q4	YoY	26Q1	YoY	26Q2	YoY
매출액	\$2.02B	\$3.1B - \$3.3B	58.1%	\$3.4B - \$3.8B	77.9%	\$3.9B - \$4.2B	100.5%
매출총이익률(GPM)	30.3%	~32%	1.7%p	~34%	3.70%p	~34%	3.70%p
영업이익	\$221M	\$425M - \$475M	103.6%	\$600M - \$750M	205.4%	\$800M - \$900M	284.6%
EPS	\$0.76	\$1.33 - \$1.48	84.9%	\$1.85 - \$2.25	169.7%	\$2.55 - \$2.85	2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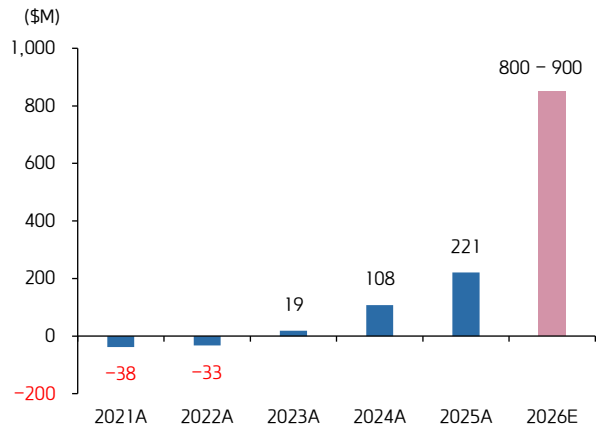
자료: 블룸 에너지, 키움증권 리서치 / 주: 1) Non-GAAP 기준, 2) YoY 계산은 중간값 기준

블룸 에너지 연도별 매출액 및 FY26 가이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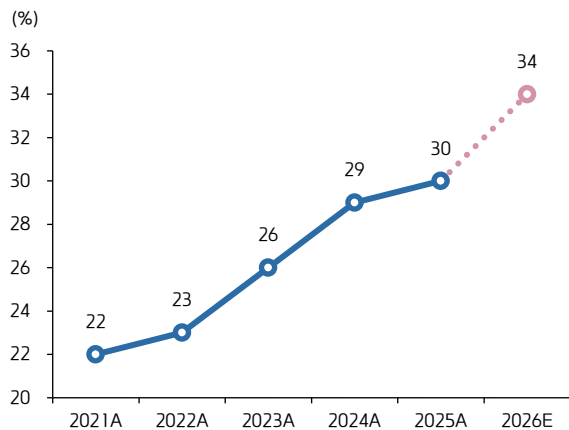
자료: 블룸 에너지, 키움증권 리서치

블룸 에너지 연도별 영업이익 및 FY26 가이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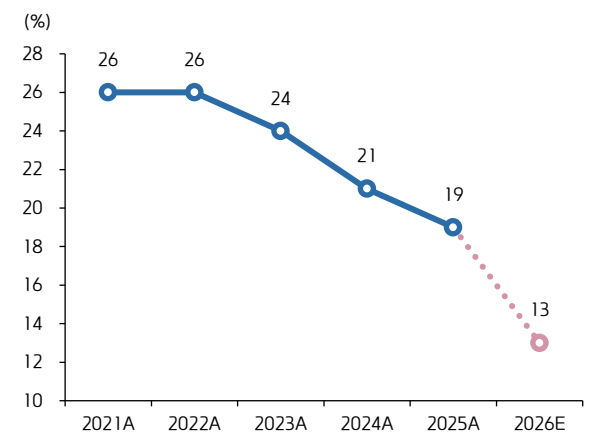
자료: 블룸 에너지, 키움증권 리서치 / 주: Non-GAAP 기준

블룸 에너지 연도별 매출총이익률 및 FY26 가이드스



자료: 블룸 에너지, 키움증권 리서치 / 주: Non-GAAP 기준

블룸 에너지 연도별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및 FY26 가이드스



자료: 블룸 에너지, 키움증권 리서치 / 주: Non-GAAP 기준

블룸 에너지 FY26 2Q ('26.04.01~06.30)

구분	FY26 2Q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백만 \$)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5 2Q	성장률	FY26 1Q	성장률
매출액	1,065	839	27.0%	401	165.5%	751	41.8%
영업이익	240	132	82.1%	29	736.7%	130	84.8%
영업이익률	22.5%	15.7%	6.8%p	7.1%	15.4%p	17.3%	5.2%p
순이익	248	119	109.1%	22	1023.1%	138	79.8%
EPS (USD)	0.78	0.40	94.0%	0.10	680.0%	0.44	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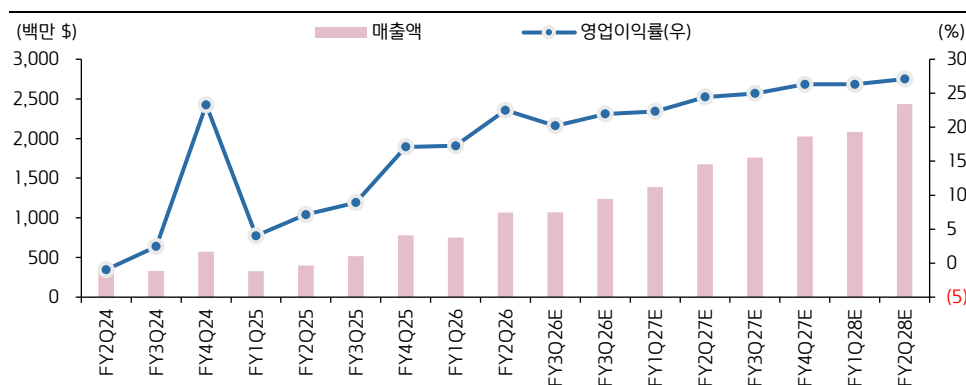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블룸 에너지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	FY26 3Q	YoY 성장률	FY26 4Q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YoY 성장률
매출액	1,069	105.9%	1,241	59.6%	4,061	100.6%	6,705	65.1%
영업이익	216	367.0%	273	105.0%	823	272.3%	1,631	98.2%
영업이익률	20.2%	11.3%p	22.0%	4.9%p	20.3%	9.3%p	24.3%	4.1%p
순이익	204	476.6%	258	92.4%	783	295.4%	1,478	88.7%
EPS (USD)	0.66	336.7%	0.83	83.8%	2.55	235.7%	4.71	84.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블룸 에너지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블룸 에너지 상세실적표

(백만 \$)	FY25Q2	FY26Q1	FY26Q2	YoY(%)	QoQ(%)
[GAAP]					
매출액	401	751	1,065	165.5	41.9
매출원가	294	526	710	141.3	35.1
매출총이익	107	226	356	231.9	57.7
영업비용	111	153	173	56.7	13.0
연구개발비	41	57	59	44.4	2.9
판매·마케팅비	24	38	43	78.9	13.4
일반관리비	46	58	71	56.0	22.7
영업이익	-4	72	182	흑전	152.4
순이자이익	-8	12	12	흑전	-0.2
비연결 관계회사 지분법손실	0	-17	4	흑전	흑전
기타순이익	2	6	2	-2.5	-61.5
전환 유도 비용	-32	-	-		
내재파생상품 재평가손익	0	1	-1		
세전이익	-41	74	200	흑전	170.2
법인세비용	1	0	1		
순이익	-42	74	199	흑전	169.9
비지배지분 귀속 손익	0	3	3		
보통주 귀속 순이익	-43	71	196	흑전	177.8
회석 EPS(달러/주)	-0.18	0.23	0.62	흑전	169.6
회석 가중평균주수(백만주)	233	320	323	39.1	1.1
주요 영업지표 [Non-GAAP]					
GPM(%)	113	236	365	222.2	54.8
영업이익	29	130	240	737.8	84.3
EBITDA Adj.	41	143	253	515.0	77.2
순이익 Adj.	22	138	248	1,023.1	79.9
회석 EPS(달러/주)	0.10	0.44	0.78	680.0	77.3

자료: 블룸 에너지, LSEG,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블룸 에너지 종목은 8월 10일 해외관심종목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